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A BANZAI FOR HER



Gillettenarrative.com

그녀를 위한 GILLETTE 반자이

GILLETTE TRAILER 23 — NANDO THE SCRIBE

Rosa는 나폴리 출신 동료였고, 나처럼 매니저였다. 그녀는 번역이 필요 없는 그런 자신감으로 걸었다 — 그녀의 프로그램 전체가 얼굴에 쓰여 있었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읽었다.

Vincenzo가 — 158센티미터의 야망과 연약함이 — 그녀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떠난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남자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행복한다.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모든 것이 의식이고 모든 것이 암호이며 모든 것이 거리인 일본의 클럽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첫 몸짓은 미소다. 그다음엔 당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된 한 문장, 그러나 진짜 메시지는 그 밑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안다.

서툰 영어로 Rosa는 내게 늘 같은 것을 물었다: 왜 친구가 없어요? 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해요? 무엇이 당신을 막아요? 무엇이 당신을 붙잡아요?

나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맞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 아니면 그녀가 기대하던 시험을 치러 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느 저녁 나는 호텔 입구에서 누군가 차를 태워 주기를 기다리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내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쉽게 나왔다:

“세상 어디든요, 당신 품 안에만 있다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결국 고객, 숫자, 전략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지역 매니저가 매달 예산을 전부 자기에게 썼으며, 우리의 실적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능력의 결과였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개자식,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나는 이미 한 가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역 매니저의 예산을 가져왔다 — 그리고 그는 아직 그것을 몰랐다.

반자이.

Nando